

알기 쉬운 서울시 재무정보 2015

서울시는 작년 한 해 동안의 살림살이 결과를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2015 회계연도 결산서」 중 시민관심 항목을 뽑아 그래프와 도표, 설명 등을 곁들인 「알기 쉬운 서울시 재무정보 2015」를 작성하였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서울시 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결산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http://finance.seoul.go.kr>)에 올려진 「서울특별시 2015 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CONTENTS

01

서울시 재무정보 개요

02

서울시 세입 · 세출

03

서울시 재무제표

04

서울시 주요 재무지표 분석

01

서울시 재무정보 개요

■ 서울시 재무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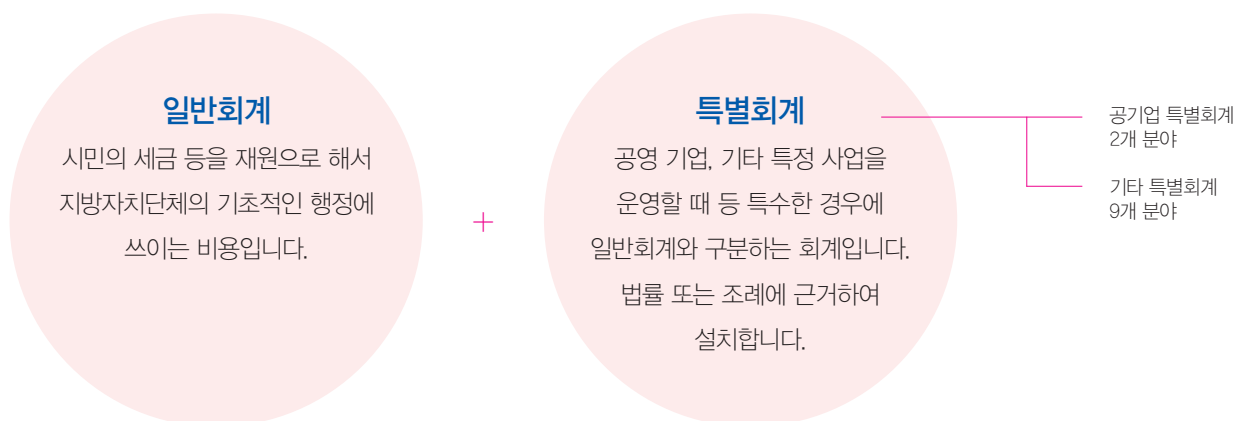
서울시는 예산을 운영할 때 미리 내년의 사업을 기획, 편성하고 집행합니다. 집행이 끝나고 나면 꼼꼼히 결산한 뒤 시민들에게 결산내역을 공개합니다.

| 2015 회계연도 예산 운영 체계도 |



| 서울시 예산 유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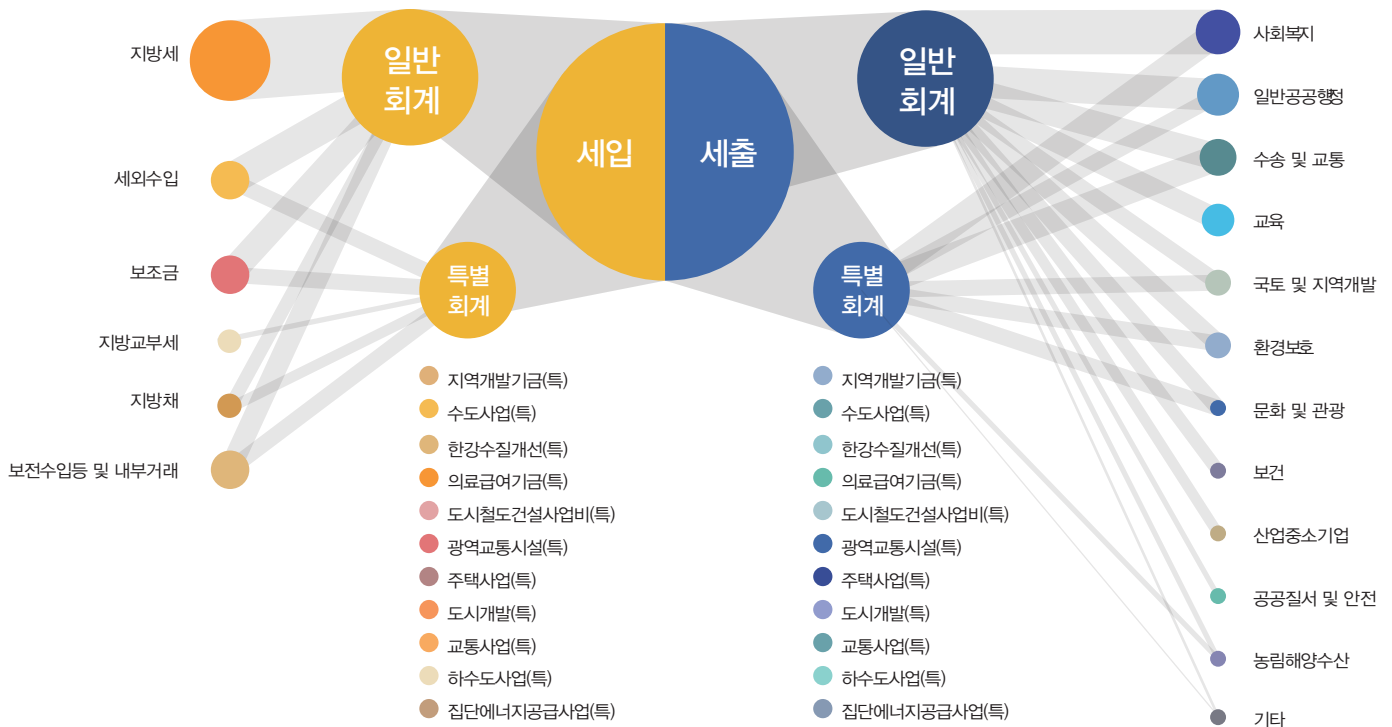
서울시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뉘집니다.



■ 서울시 세입 및 세출 결산

| 서울시 세입 및 세출 흐름표 |

서울시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재원을 통해 사회복지, 일반공공행정 등 다양한 분야로 나눠 예산을 집행합니다. 흐름이 굵을수록 금액이 큰 분야입니다. 세입과 세출 흐름표로 결산의 흐름을 한 눈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15년도의 서울시 살림살이는 매우 건전했습니다. 예산현액 ¹⁾ 27조 1,121억 원 ²⁾ 보다 세입은 조금 더 많고, 세출은 조금 더 적었습니다. 세입과 세출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다음 연도 사업추진과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 등을 위해 이월하였습니다.



1) 예산현액은 당해연도 예산에 전년도 이월액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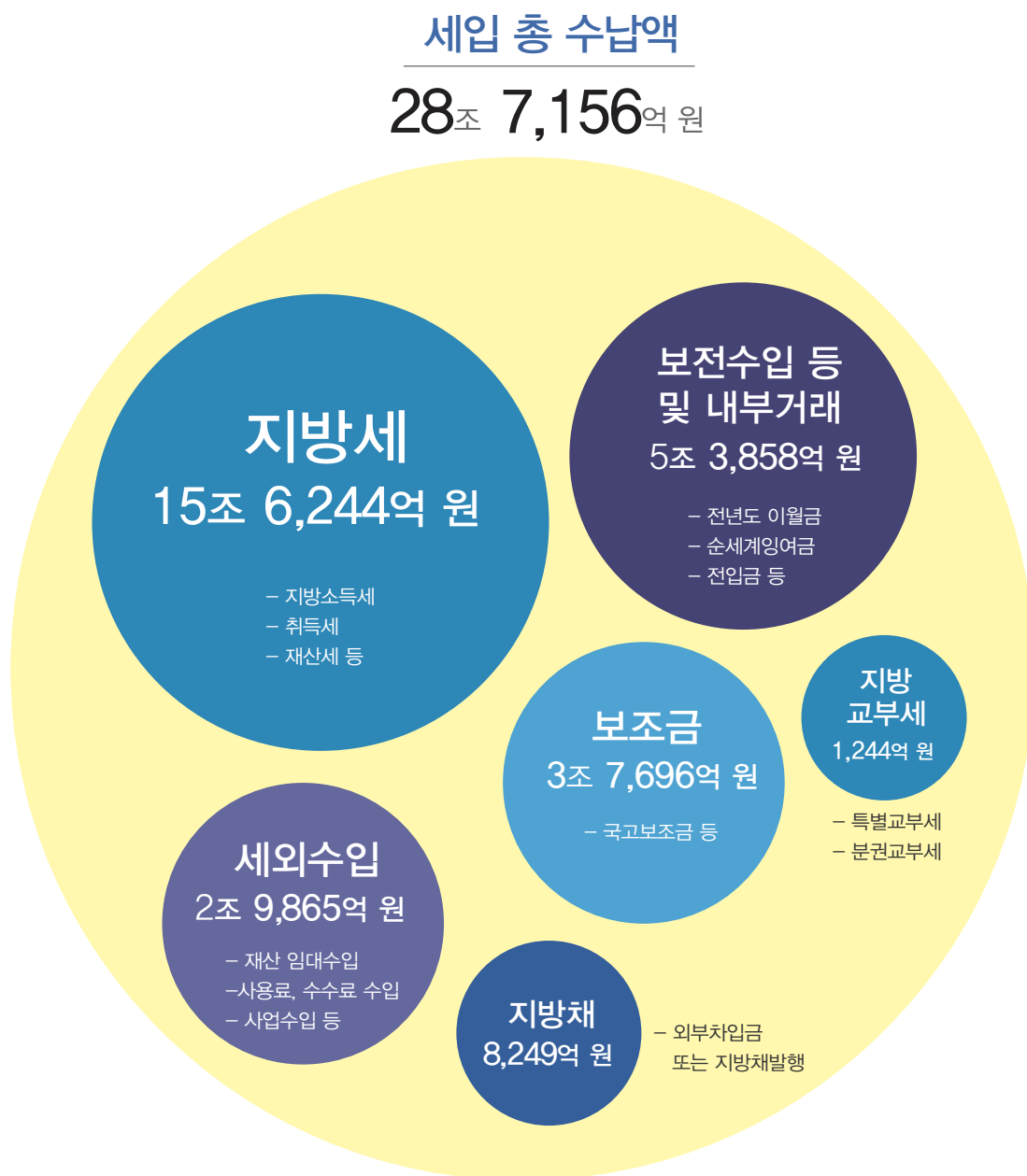
2) 결산은 원 단위까지 실시하므로, 이 보고서에 표기된 금액과는 단위 차이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

02 서울시 세입 · 세출

■ 서울시 세입

2015 회계연도 세입은 28조 7,156억 원으로 작년에 비해 2조 8,289억 원(10.9%)이 증가하였습니다.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시민이 납부하시는 세금인 지방세(15조 6,244억 원)이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세외수입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세입이 증가한 주된 이유는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면서 취득세 등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 서울시 세입 항목별 비중 및 금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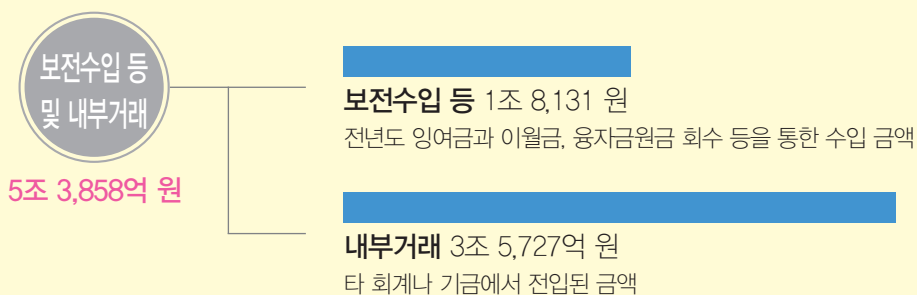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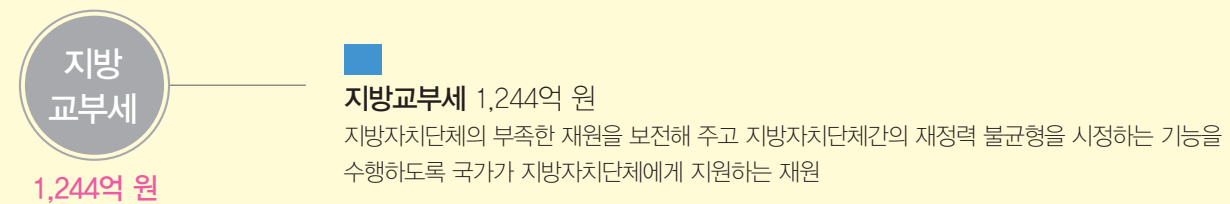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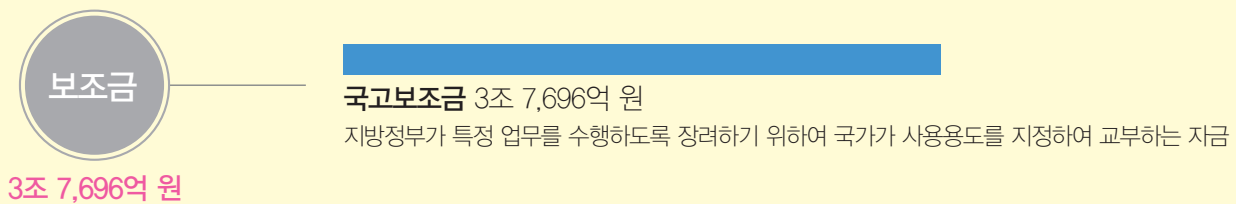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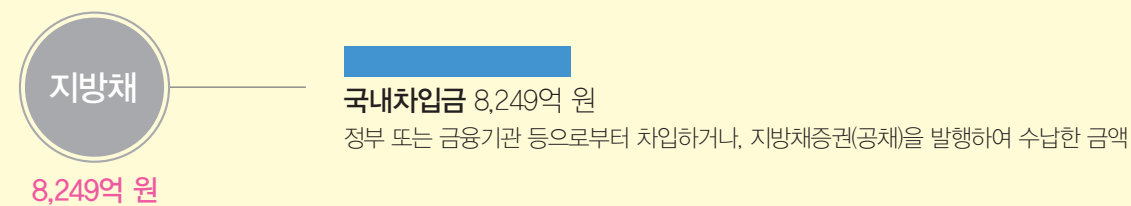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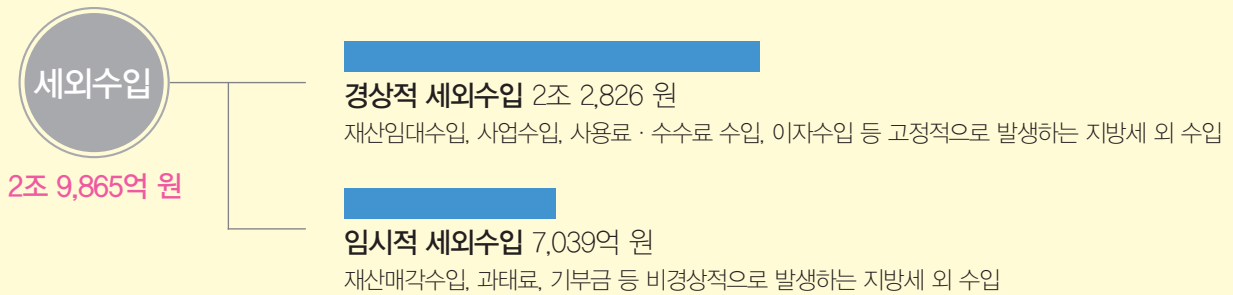
| 지방세 항목별 세입 세부 사항 |

지방세 15조 6,244억 원을 구성하는 보통세, 목적세, 지난연도 수입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지방세 외 항목별 세입 세부 사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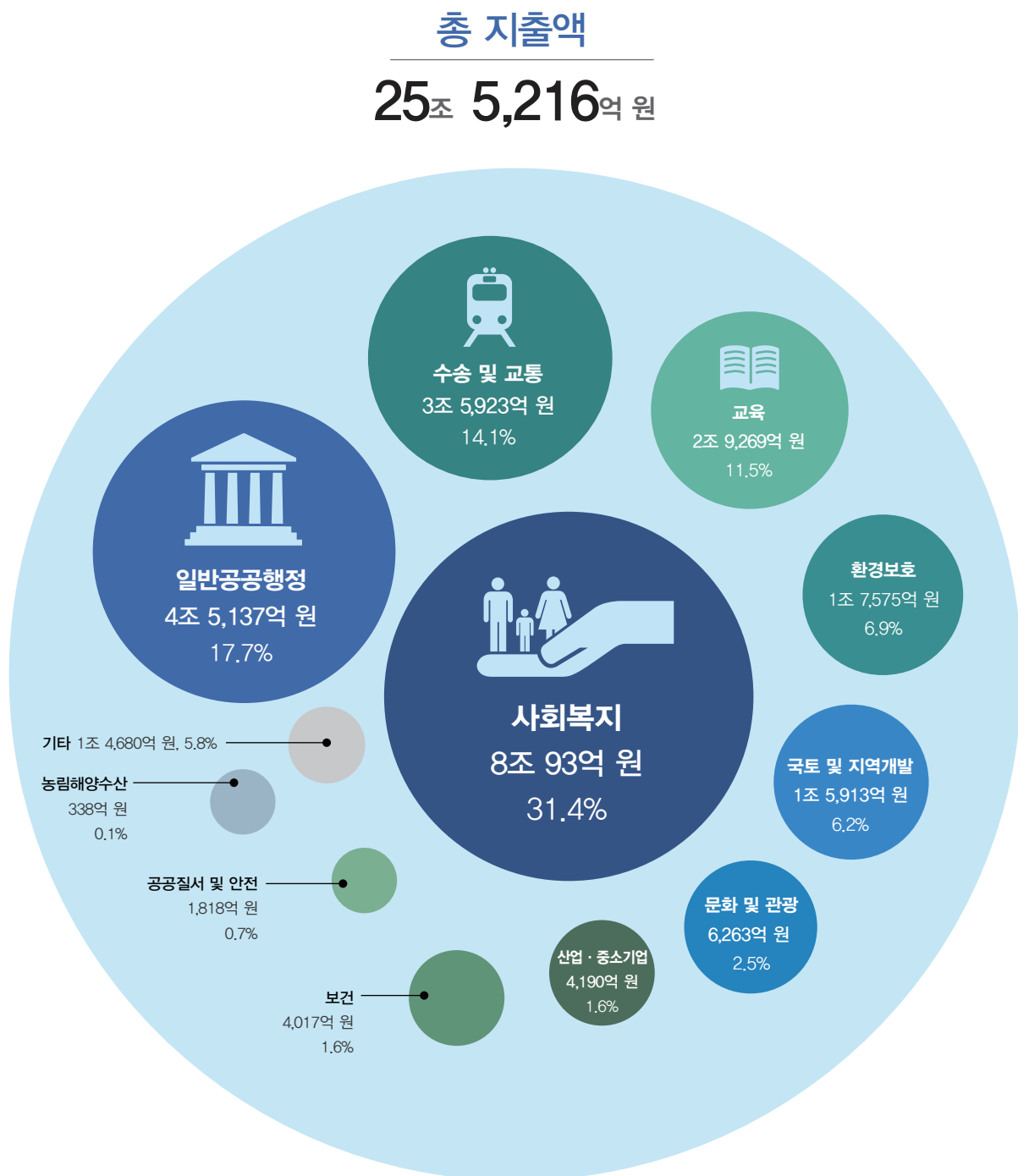
지방세 외 세입을 구성하는 항목인 세외수입, 지방채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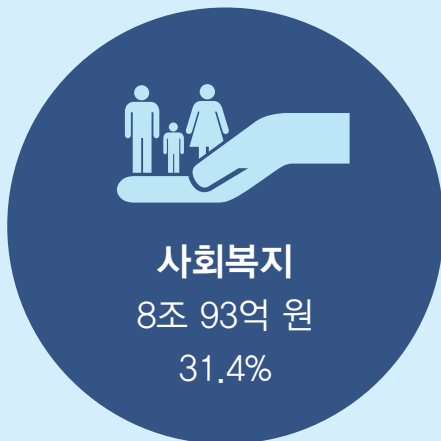
■ 서울시 세출

올해의 세출 금액은 25조 5,21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3,463억 원(5.6%)이 증가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예산을 시민의 복지를 위해 가장 많이 집행했으며 그 외 행정분야, 교통분야, 교육분야에 주로 집행했습니다.

| 서울시 세출 분야별 구성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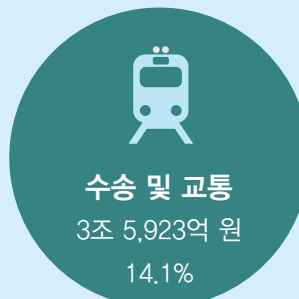
| 서울시 세출 분야별 현황 1 |



취약계층지원	2조 9,695억 원
보육 · 가족 및 여성	1조 9,258억 원
노인 · 청소년	1조 7,755억 원
노동	976억 원
주택	1조 2,137억 원
사회복지 일반	272억 원



입법 및 선거관리	178억 원
지방행정 · 재정지원	3조 4,862억 원
재정 · 금융	4,234억 원
일반행정	5,863억 원



도로	8,374억 원
도시철도	7,559억 원
대중교통 · 물류 등	1조 9,990억 원



유아 및 초중등교육	2조 8,793억 원
고등교육	398억 원
평생 · 직업교육	78억 원



상하수도 · 수질	1조 2,382억 원
폐기물	1,133억 원
대기	2,887억 원
자연	304억 원
환경보호 일반	869억 원

| 서울시 세출 분야별 현황 2 |

국토 및 지역개발

1조 5,913억 원
6.2%



수자원

2,074억 원

지역 및 도시

1조 3,834억 원

산업단지

5억 원

문화 및 관광

6,263억 원
2.5%



문화예술

2,393억 원

관광

551억 원

체육

2,117억 원

문화재

1,041억 원

문화재 및 관광 일반

161억 원

산업 · 중소기업

4,190억 원
1.6%



무역 및 투자유치

103억 원

산업진흥 · 고도화

3,769억 원

산업 · 중소기업일반

318억 원

보건

4,017억 원
1.6%



보건의료

3,945억 원

식품의약품안전

72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1,818억 원
0.7%



경찰

11억 원

재난방재 · 민방위

359억 원

소방

1,448억 원

농림해양수산

338억 원
0.1%



농업 · 농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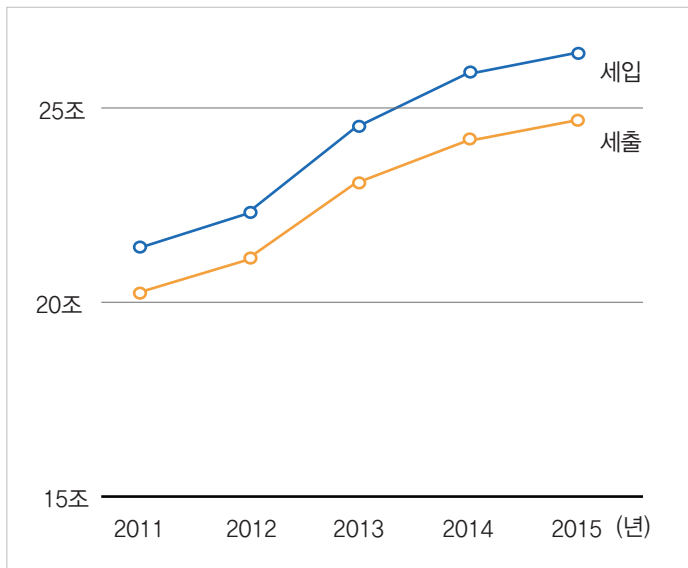
338억 원

기타

1조 4,680억 원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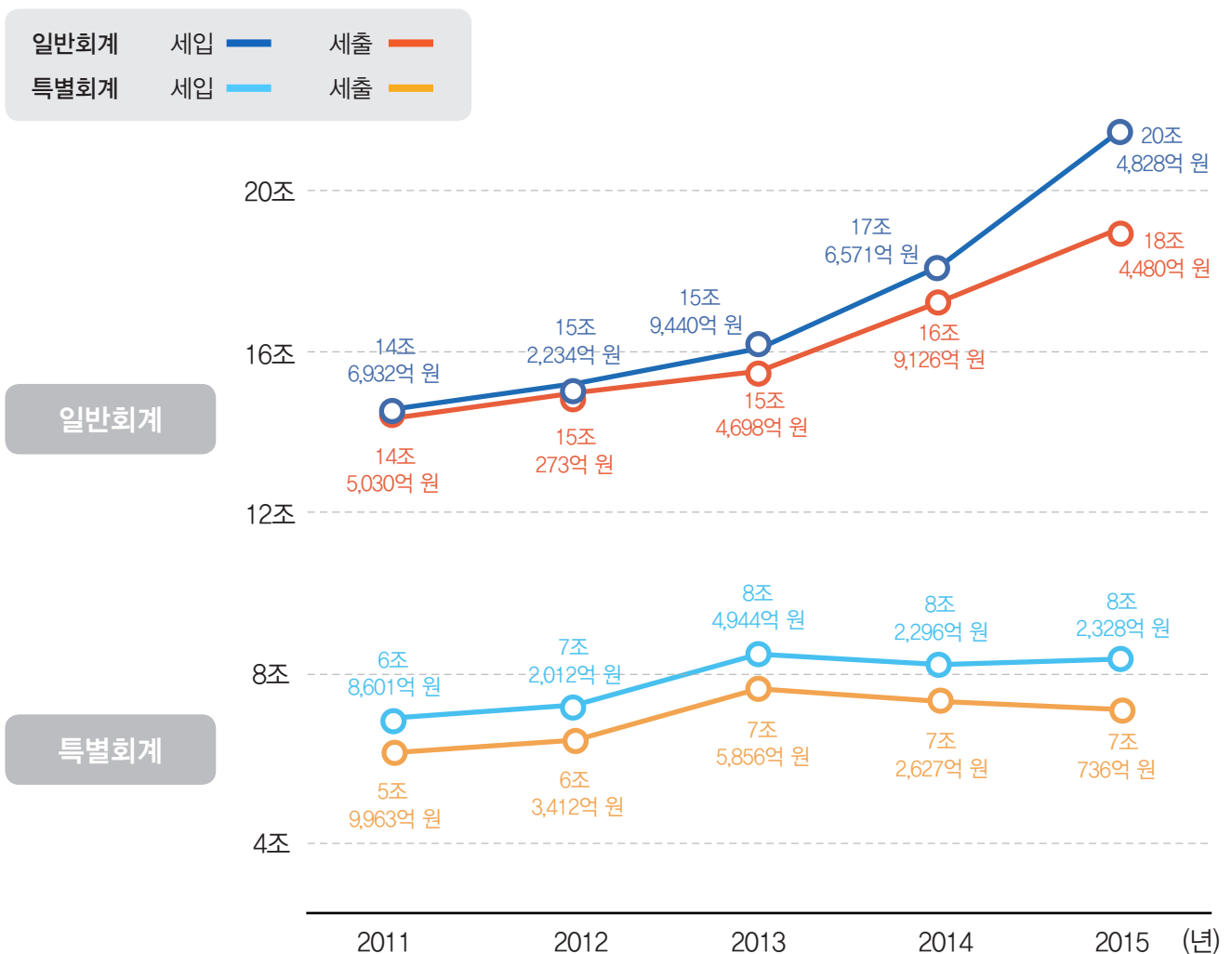
■ 최근 5년간 세입 · 세출 추이



최근 5년간 서울시 재정규모는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 세입을 살펴보면 2011년 21조 5,533억 원에서 2015년 28조 7,156억 원으로 7조 1,623억 원(33.2%)이 증가하였고, 세출은 2011년 20조 4,993억 원에서 2015년 25조 5,216억 원으로 5조 223억 원(24.5%)이 증가하였습니다.
-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은 39.4%인 5조 7,896억 원이 증가하여 특별회계 증가율 20.0%보다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세출 또한 일반 회계가 27.2% 증가하여, 특별회계 증가율 18.0%에 비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이는 2014 회계연도에 이어 2015 회계연도에도 취득세 등의 지방세가 증가한 것이 주요원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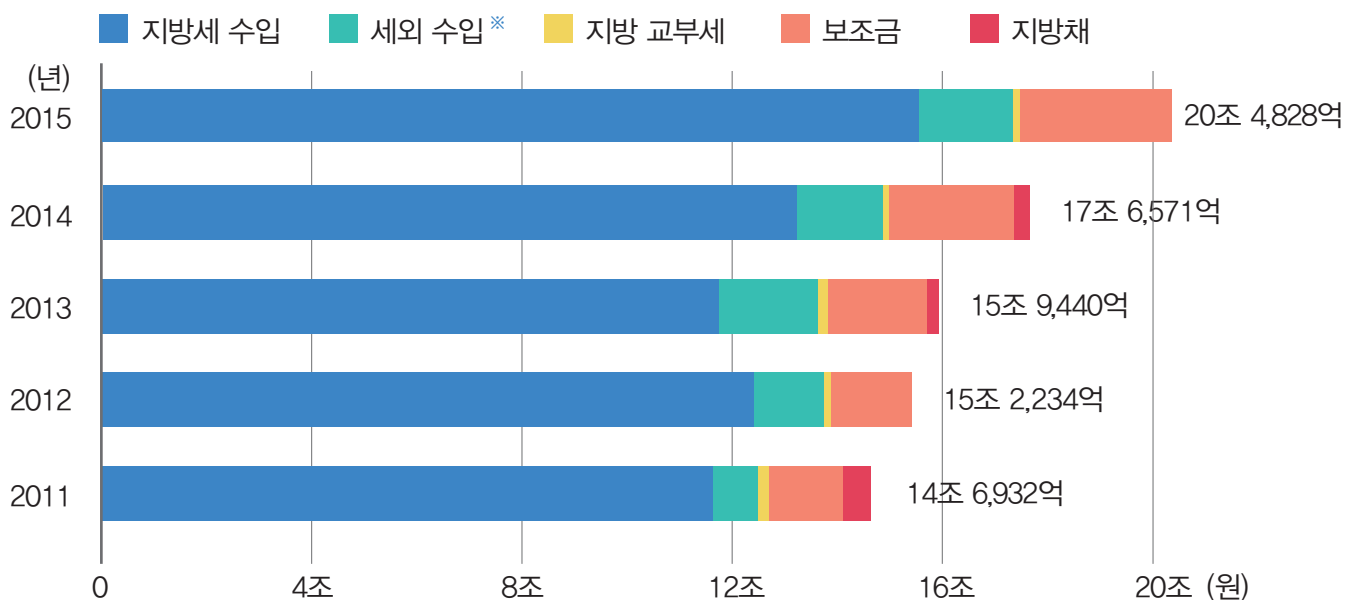
| 회계별 세입 · 세출 추이 |



■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세입·세출 항목별 구성 추이

| 세입 항목별 구성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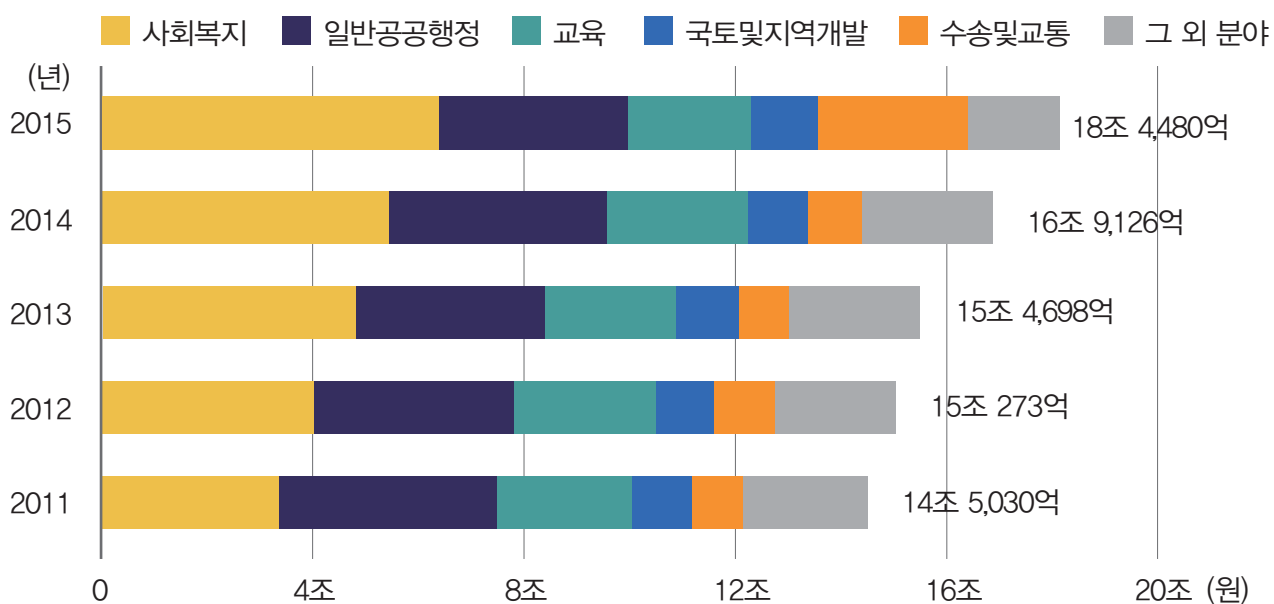
지방세수입은 일반회계 세입재원의 대부분(75~80%)을 차지하고 있으나, 사회복지비의 수요 증가로 국고보조금의 비율이 매년 꾸준히 증가 2011년(9.8%) → 2015년(14.2%)하고 있습니다.



※2015년 세입항목 중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존 세외수입에서 분리된 항목으로 현 그래프에서는 세외 수입으로 합쳐서 표기함

| 세출 분야별 구성비 |

영유아보육료 지원, 기초노령연금 등의 복지정책의 확대로 사회복지비의 구성비율이 해마다 증가 2011년(23.1%) → 2015년(32.8%)하고 있습니다.



03

서울시 재무제표

■ 재무제표(재무회계결산)란?

재무제표란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우리 시의 한해 동안 살림살이를 정리한 재정상태와 재정 운영 결과를 나타내는 재무보고서로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재무제표의 필요성 및 효과 |



우리 시의 살림결과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시민을 위한 분야별 시설 조성 규모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용가능한 자산과 향후 부담할 부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시민이 납부한 세금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시책의 의사결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 성장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 2015년 재무회계결산 결과 |

재정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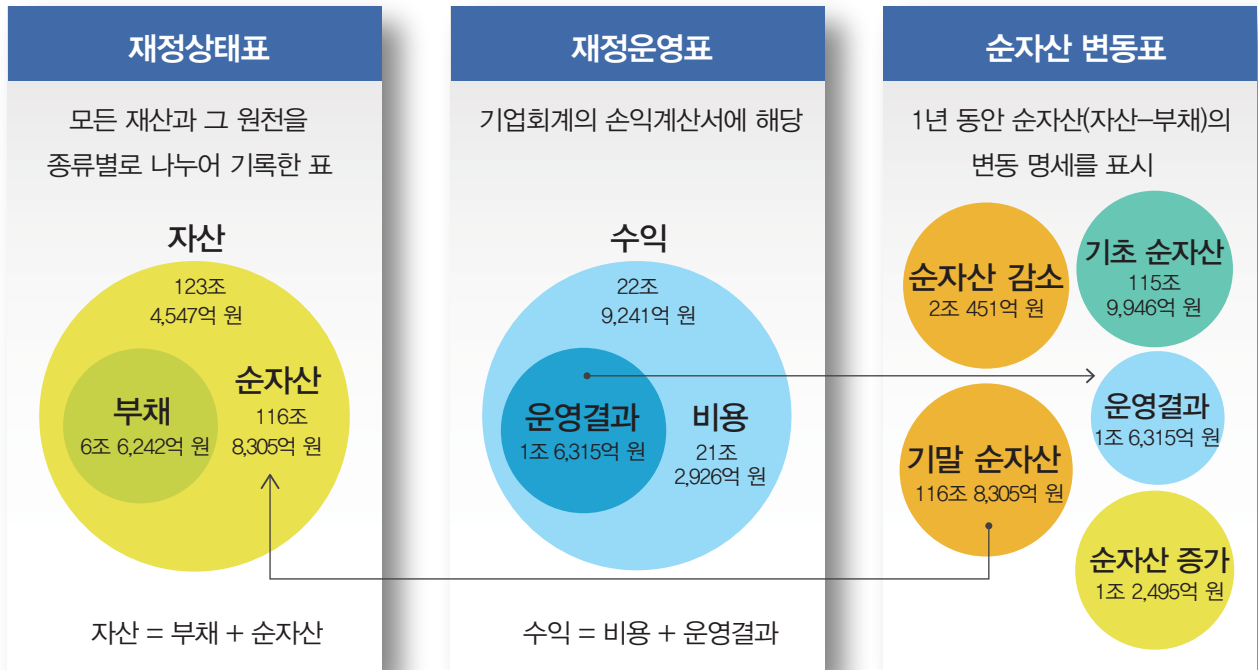
자 산	123조 4,547억 원
- 부 채	6조 6,242억 원
순자산	116조 8,305억 원

재정운영결과

비 용	21조 2,926억 원
- 수 익	22조 9,241억 원
운영결과	1조 6,315억 원 흑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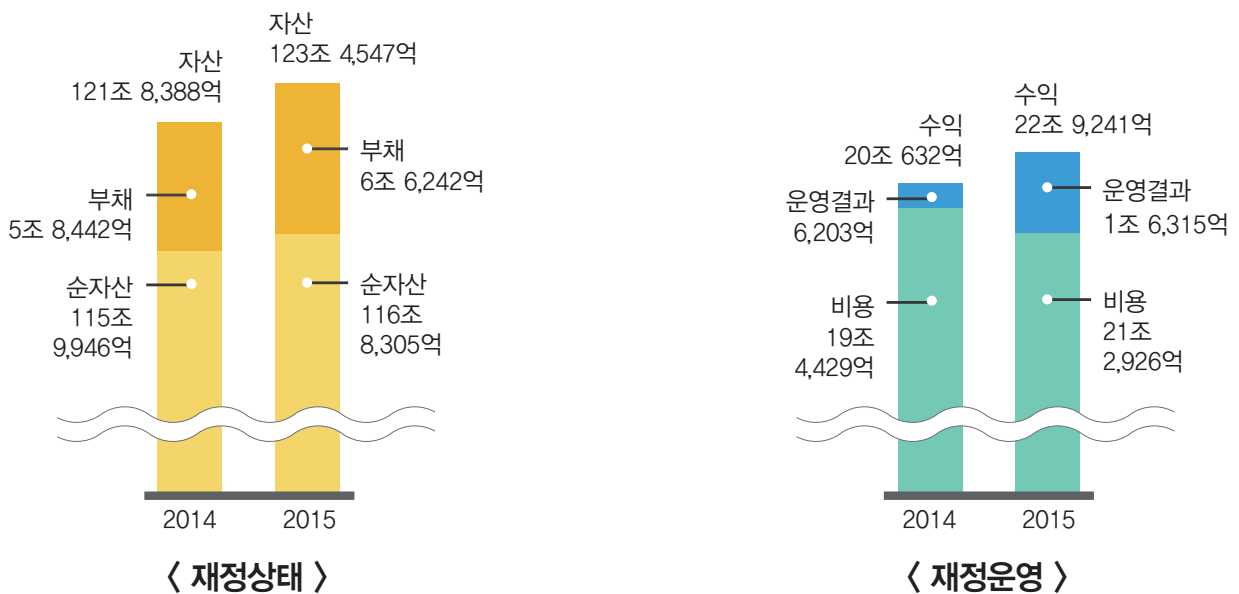
| 상호관계로 알아보는 2015년 서울시 재무제표 |

서울시의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의 의미와 상호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년도와 비교하여 알아보는 2015년 서울시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결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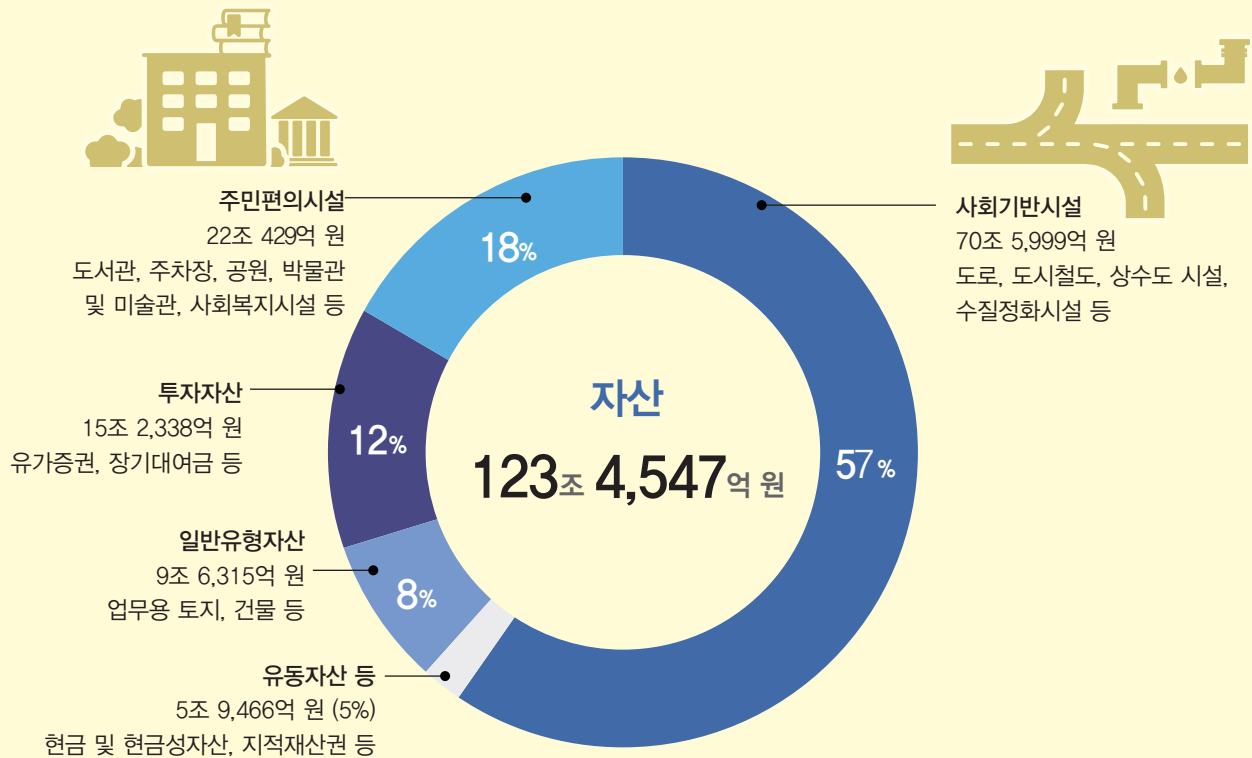
2015년 재무결산 결과 서울시의 자산은 전년대비 1조 6,159억 원(1.3%)증가하였고, 부채는 전년대비 7,800억 원 (13.3%)증가하였으며, 비용과 수익은 전년대비 1조 8,497억 원(9.5%), 2조 8,609억 원(14.3%)이 각각 증가하여, 2015 회계연도 서울시의 재정운영 결과는 1조 6,315억 원 흑자로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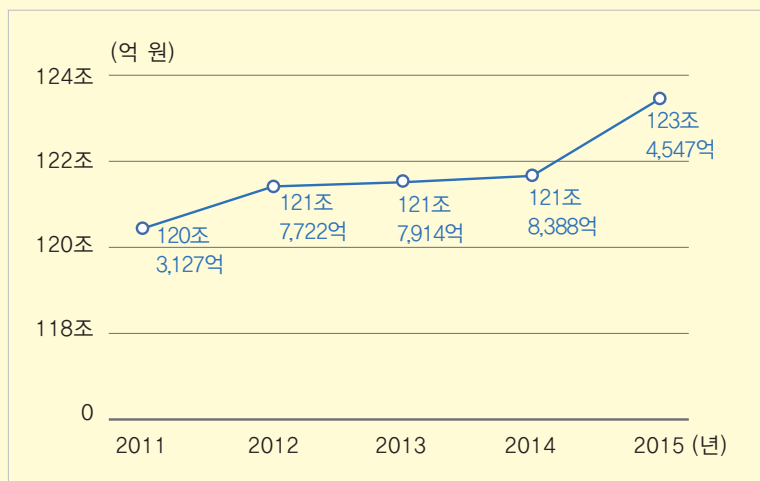
| 2015년도 서울시 자산 |

2015년 서울시의 자산은 123조 4,547억 원으로 사회기반시설 57%, 주민편의시설 18%, 일반유형자산 8%로 유형자산의 비중이 전체의 8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윤 창출이 목적인 사기업과 다른 정부회계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 일반적으로 사기업의 경우는 이윤창출이 주목적이므로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산만 계상하며, 자산 회전율이 높은 유동자산의 비중이 많은 특징이 있는 반면,
- 서울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제공이 주목적이므로 사회기반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등 고정자산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 최근 5년간 서울시 자산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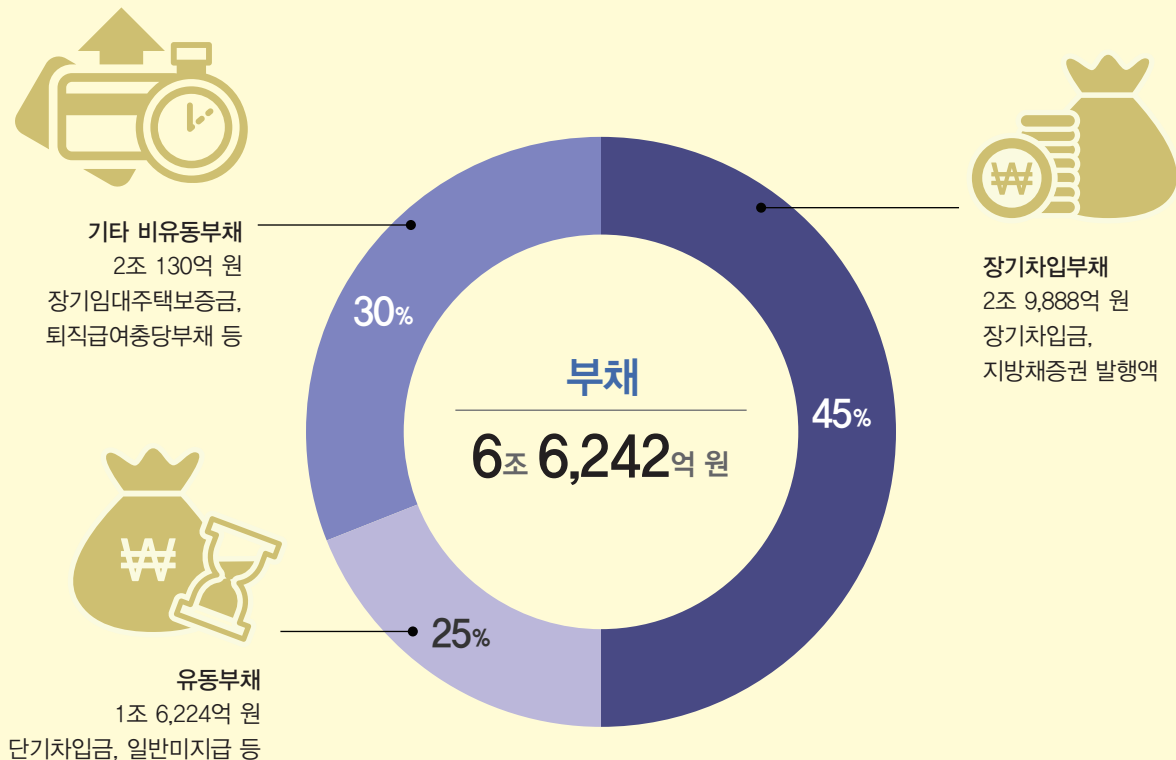


최근 5년간 서울시 자산은 연평균 0.52%씩 증가하였으며, 기간중 2012년에는 우이~신설 간 경전철건설 및 지하철 9호선 3단계 등 시설 투자가 증가하고 2015년에는 토지, 건물, 구축물(교량, 터널) 등 유형자산 및 세입 세출결산결과 세잉잉여금(현금·예금)의 증가로 총자산이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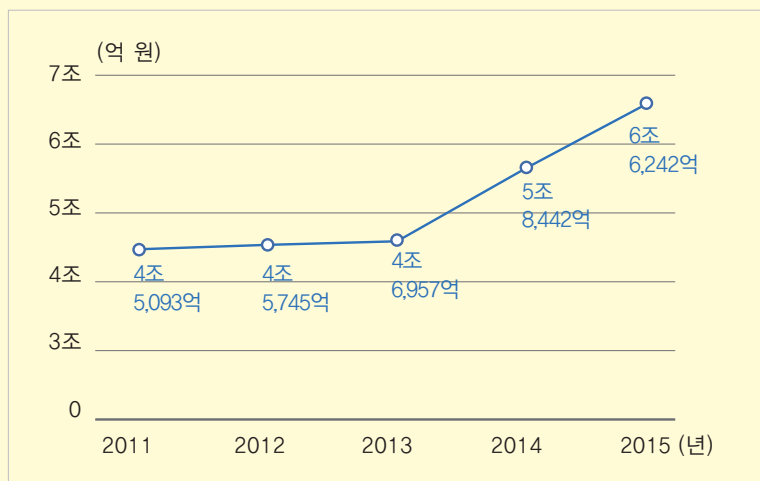
| 2015년도 서울시 부채 |

2015년 서울시의 부채는 6조 6,242억 원으로 장기차입부채가 45%로 가장 많으며 기타비유동부채 30%, 유동부채 25% 순입니다.

- 장기차입부채는 서울시가 자금조달 목적으로 중앙정부나 외부 금융기관에서 빌려온 차입금과 도시철도공채 등 지방채증권 발행액이며, 조달된 자금은 주로 사회기반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확충에 사용되었습니다.
- 기타비유동부채는 서울시가 소유한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임대보증금이 88.5%로 기타비유동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기타 장기차입부채에 대한 미지급이자, 퇴직급여충당부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최근 5년간 서울시 부채 추이 |



최근 5년간 서울시 부채는 연평균 9.38%씩 증가하였으며, 2015년에 부채가 증가한 원인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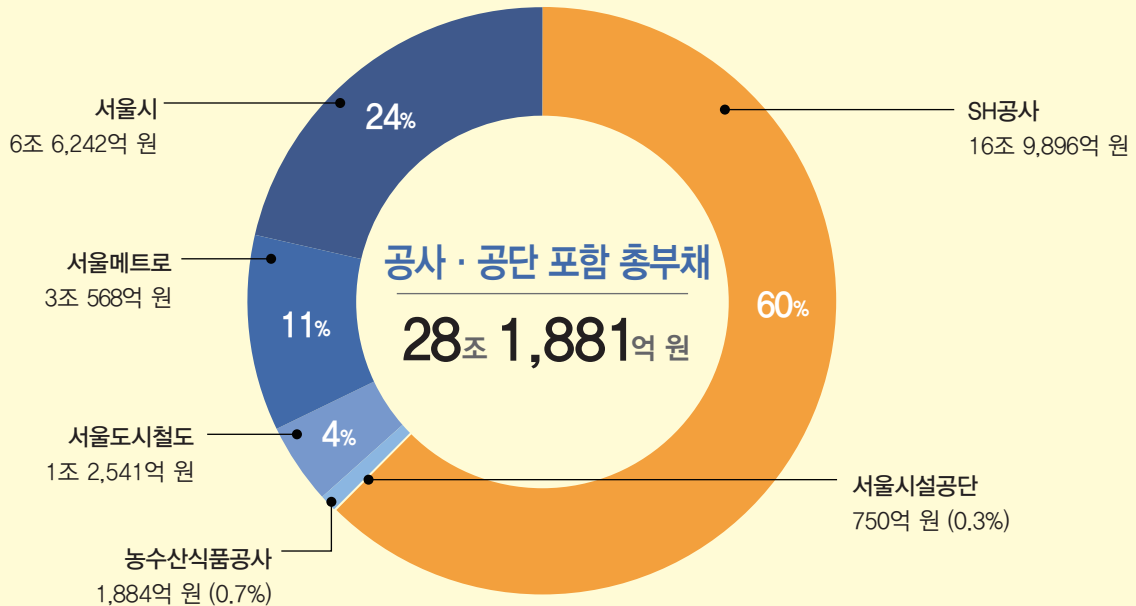
- 도시철도공채 4,251억
- 임대주택보증금 1,571억
- 기타 지방세 수익 증가로 인한 미지급금 (자치구 조정교부금 2,540억 및 교육청 법정 전출금 1,693억 원) 등이 증가한 것에 기인합니다.

| 공사·공단을 포함한 서울시 부채와 채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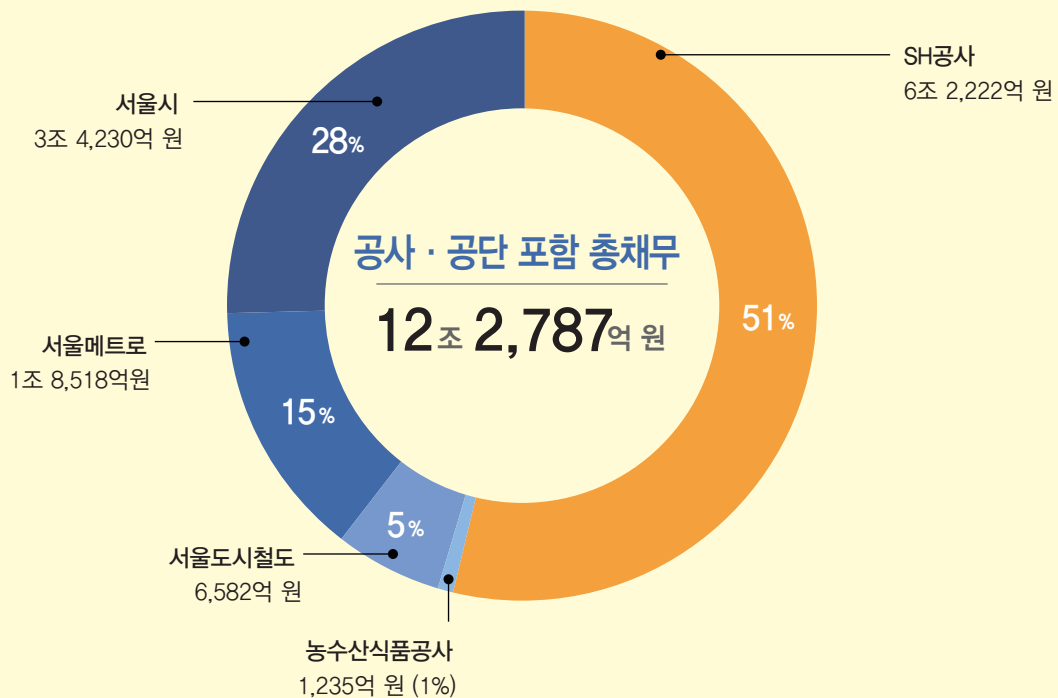
서울시 산하 공사·공단은 서울시와 별도로 자체 결산서를 작성하여 개별 공시하고 있습니다. 공사·공단을 포함한 서울시 총부채와 총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 산하 공사·공단 : SH공사,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 농수산식품공사, 서울시설공단

※**부채** : 채무 외에도 임대주택 보증금, 고용인 예상퇴직금, 미지급 이자비용 등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 기준으로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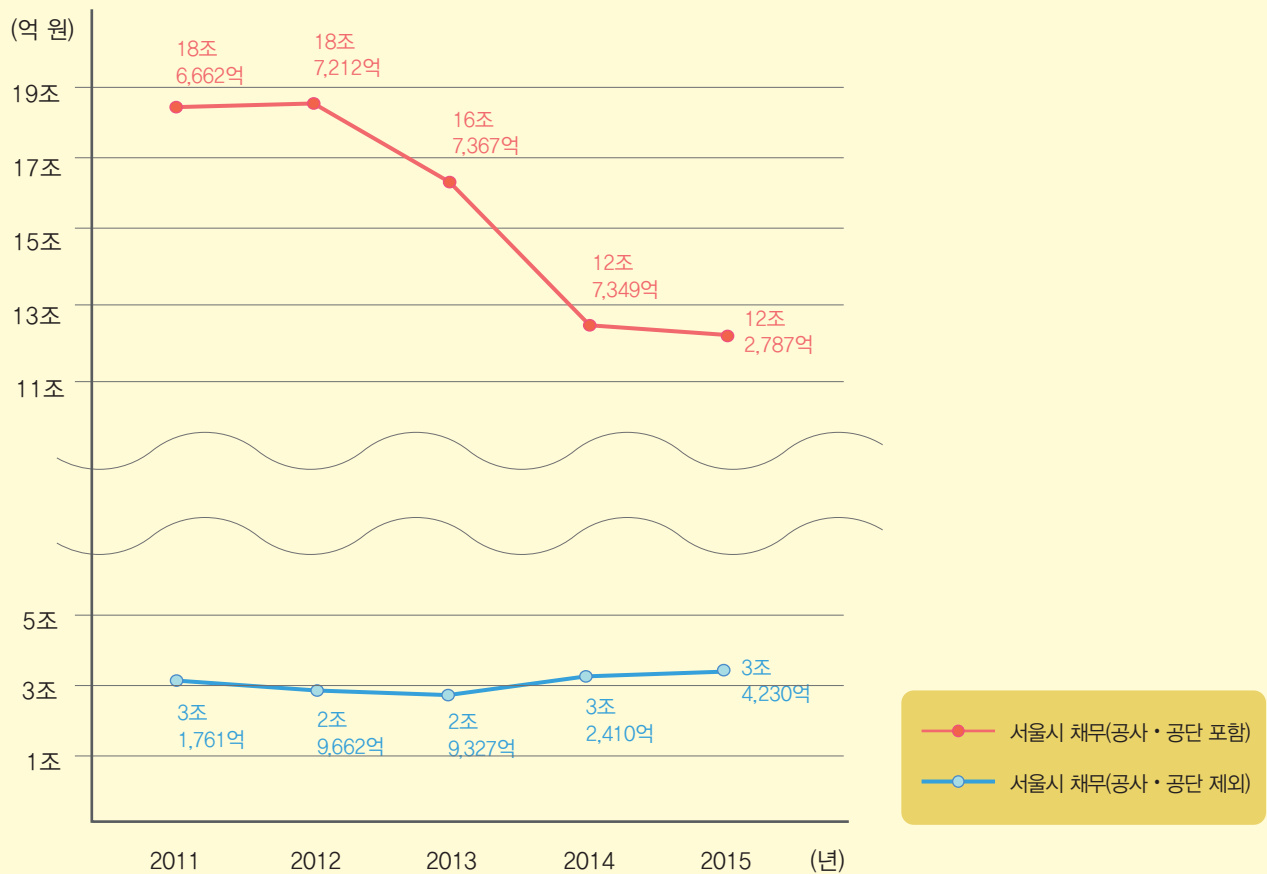
※**채무** : 외부로부터 빌려온 돈(차입금, 지방채증권발행액) 등 현금주의, 단식부기 회계 기준으로 산출



| 최근 5년간 채무 추이 |

최근 5년간 공사·공단을 포함한 서울시 채무는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5년도 말에는 6조 3,875억 원이 감소한 12조 2,787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는 채무 감축을 위해서 신규 지방채(차입금 및 공채) 발행을 억제하고 만기도래한 채무를 상환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입니다.



한편, 2015년도 말 서울시의 채무(공사·공단 제외)가 2014년 대비 1,820억 원이 증가한 것은 만기 도래한 지역 개발채권(1,502억) 및 단기민간차입금(무상보육재원 1,000억 원)을 상환하여 일부 감소한 부분도 있으나, 도시철도공채 매출액을 예년과 달리 양공사 이관없이 전액 시에서 관리하여 4,251억 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최근 5년(민선 5기)간 채무 감축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에도 공사·공단을 포함한 서울시 총 채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건전 재정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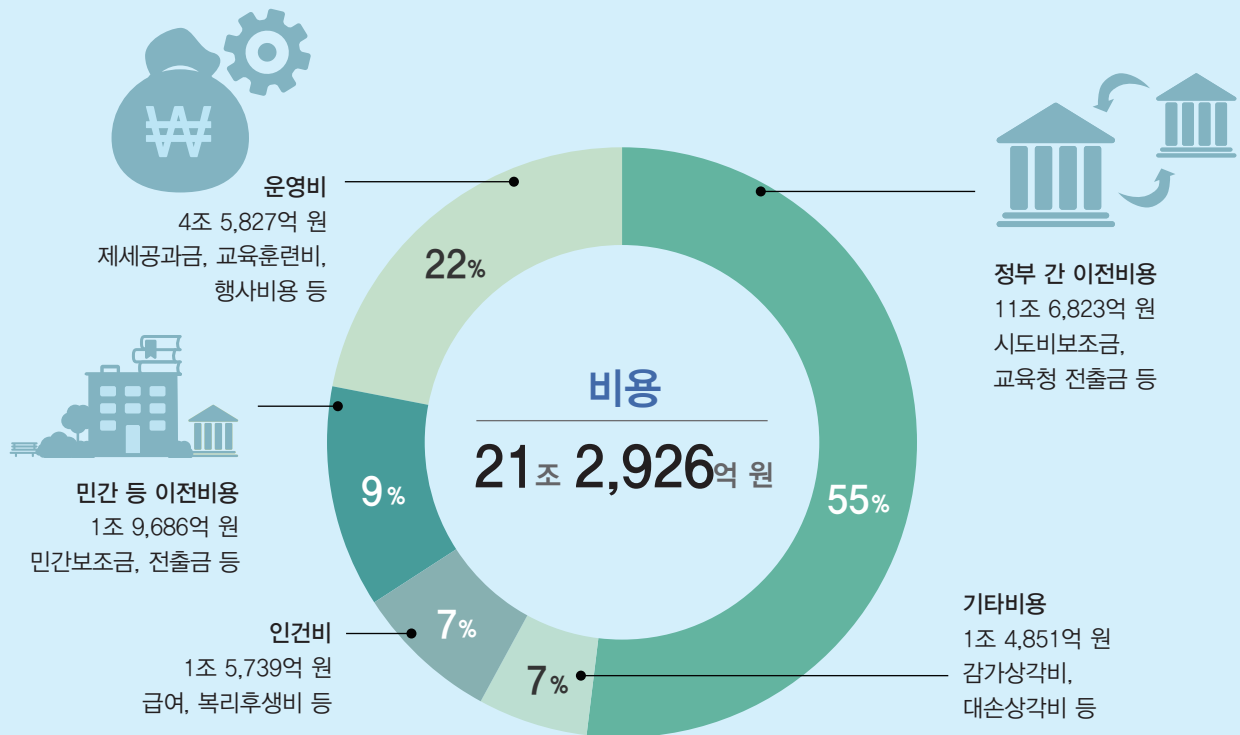
| 2015년도 서울시 비용 |

2015년 서울시의 비용은 21조 2,926억 원으로 정부 간 이전비용 55%, 운영비 22%, 민간 등 이전비용 9%, 인건비 7%, 기타 비용 7% 순으로 정부 간 이전비용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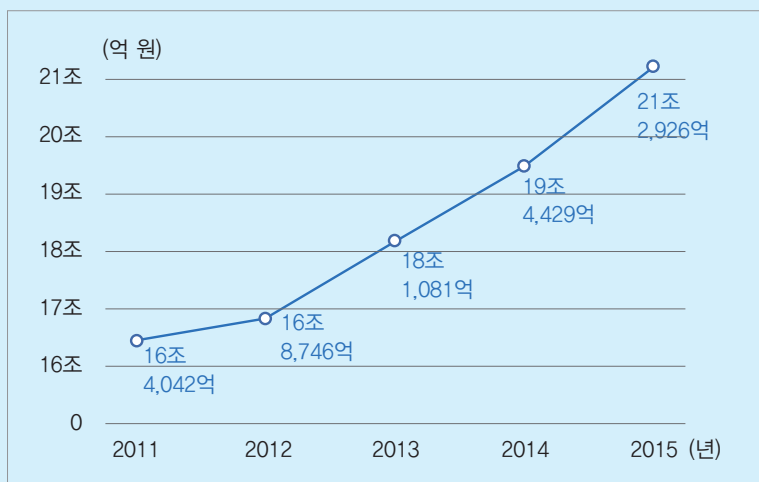
– 정부 간 이전 비용은 자치구에 교부하는 시도비 보조금,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조정교부금, 재정 교부금, 국가에 대한 부담금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 자치구가 징수한 취득세 및 재산세 수입액의 일정 비율을 자치구에 제공

※재정교부금 : 자치구가 징수한 시세의 일부를 자치구간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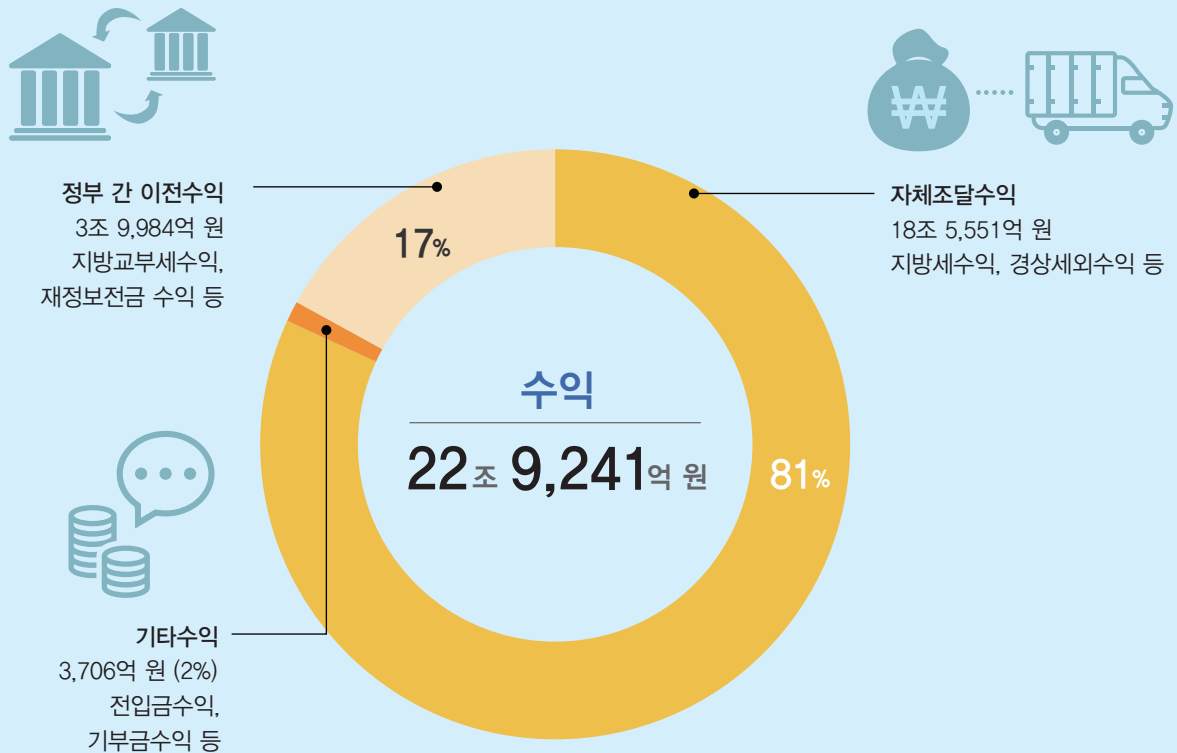
| 최근 5년간 서울시 비용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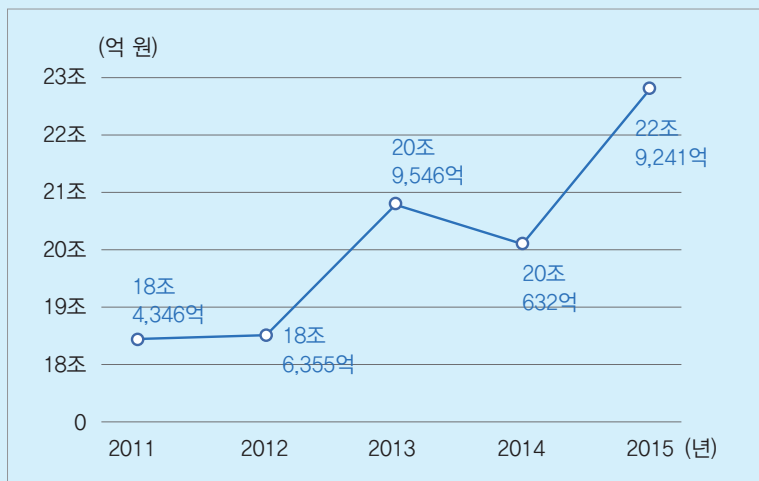
최근 5년간 서울시 비용은 연평균 5.96%씩 증가하였으며, 특히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복지비용) 등 정부간 이전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2015년도 서울시 수익 |

2015년 서울시의 수익은 22조 9,241억 원으로 자체조달수익이 81%, 정부간 이전수익 17%, 기타수익 2% 순이며, 서울시는 타 자치단체보다 지방세 및 세외수익 등 자체조달수익의 비율이 높아 재정자립도가 가장 양호한 수준입니다.



| 최근 5년간 서울시 수익 추이 |



최근 5년간 서울시 수익은 연평균 4.87%씩 증가 하였으며, 2015년에 수익이 크게 증가한 원인은 부동산 거래량 증가로 전년대비 지방세 수익이 2조 4,138억 원이 증가하고, 기초연금 등 중앙 정부의 복지비 지출 증가에 따른 국고보조금 수익 5,910억 원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04 서울시 주요 재무지표 분석

■ 주요 재무지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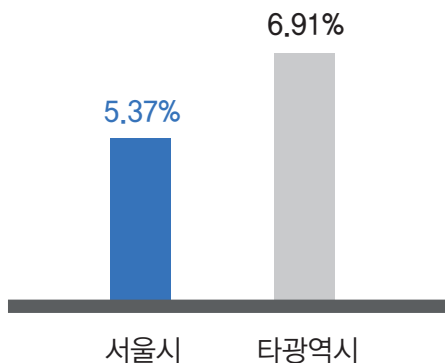
기업회계에서는 재무지표 분석을 통해 기업의 재정건전성과 미래 기업의 주가가격 등을 예측하는데 활용합니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결산 결과에 따라 재무지표 분석을 통해 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본 자료는 2015년도 결산 결과에 따라 주요 재무지표를 선정, 서울시와 유사조직으로 분류되는 7개 광역시(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세종)의 평균치를 비교 값으로 하여 서울시 재정상태 등을 비교 분석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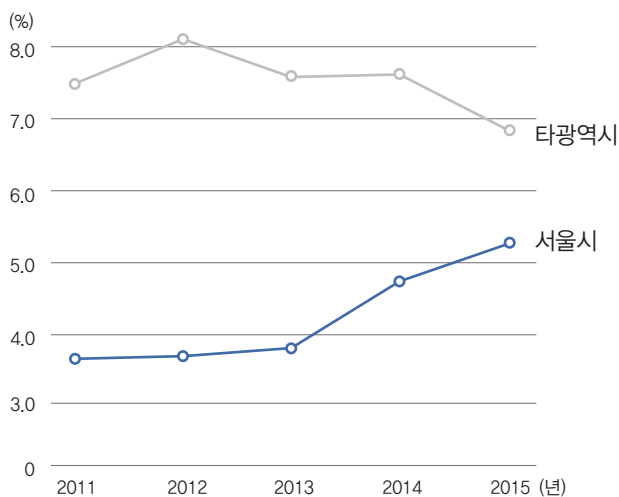
|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 | 총자산에서 총부채가 차지하는 비율

총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낮을수록 재정 안정성이 양호합니다. 2015년도 서울시는 타광역시와 비교시 총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낮은(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도 서울시와 타 광역시 평균 비교〉



〈최근 5년간 서울시 및 타광역시 평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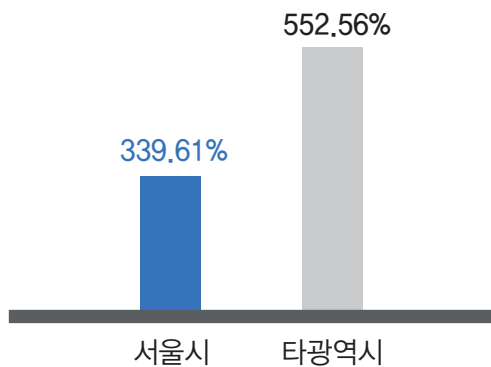


| 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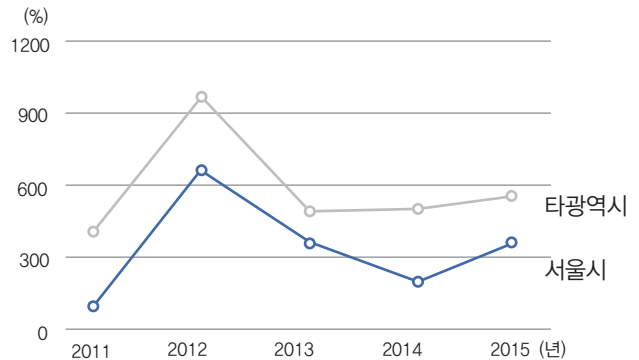
유동부채 : 결산일 기준 1년내 상환할 부채, 유동자산 : 1년내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

기업회계의 경우 일반적으로 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의 비율이 200% 이상일 때 안정적인 상태로 인식합니다. 서울시는 현재 유동자산의 비율이 300% 이상이므로 단기적으로 채무상환에 대한 압박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5년도 서울시와 타 광역시 평균 비교〉



〈최근 5년간 서울시 및 타광역시 평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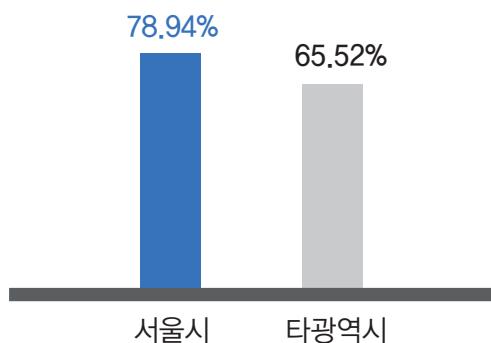
| 총수익 대비 경상수익 비율 |

총수익 : 서울시의 전체 수익 총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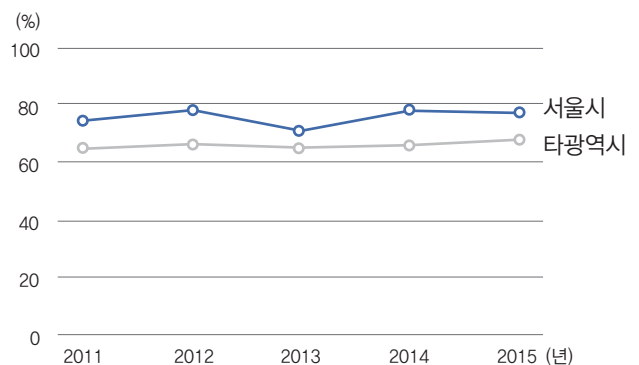
경상수익 : 지방세수익+경상세외수익+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조정교부금

총수익 중 고정(경상)적인 수익의 비율을 나타내며, 비율이 높을수록 세입 여건이 양호하므로 안정적인 자원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서울시는 타 광역시와 비교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2015년도 서울시와 타 광역시 평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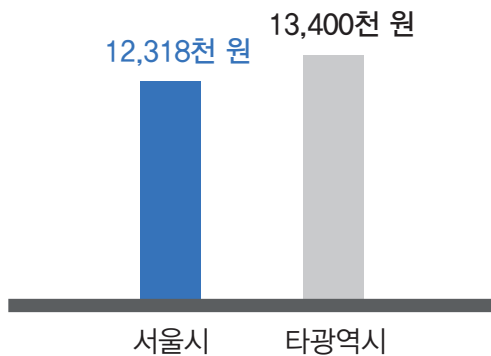
〈최근 5년간 서울시 및 타광역시 평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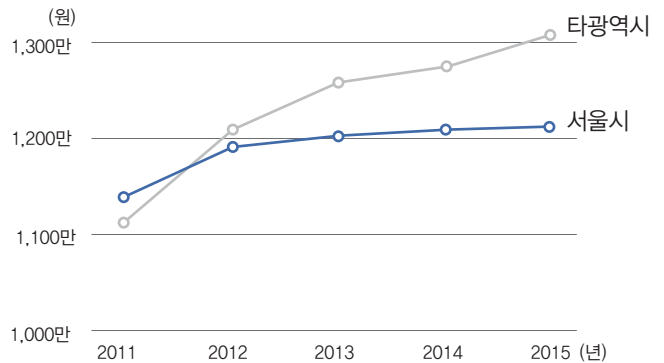
| 주민 1인당 총자산액 | 자산 총액을 당해연도 말 인구수로 나눈 값

주민 1인당 총자산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1인당 공공서비스 공급 정도를 나타냅니다. 서울시는 토지 등 자산가액이 높고 사회기반시설의 확충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타광역시에 비해 주민수가 많아 주민 1인당 총 자산 규모가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서울시와 타 광역시 평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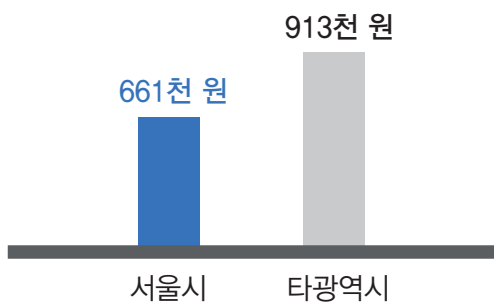
〈최근 5년간 서울시 및 타광역시 평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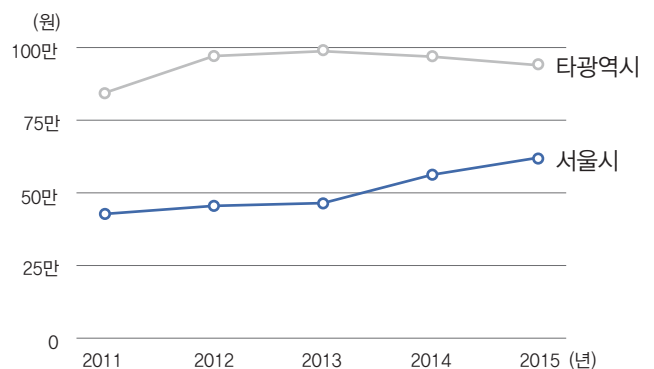
| 주민 1인당 총부채액 | 부채 총액을 당해연도 말 인구수로 나눈 값

주민 1인당 총 부채는 낮을수록 재정 안정성이 양호합니다. 올해 서울시는 전년에 비해 부채가 증가한 반면 주민수는 감소했음에도 여전히 주민 1인당 총 부채는 가장 낮은(양호한) 수준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015년도 서울시와 타 광역시 평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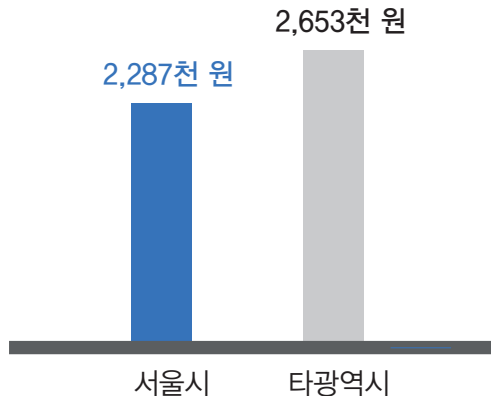
〈최근 5년간 서울시 및 타광역시 평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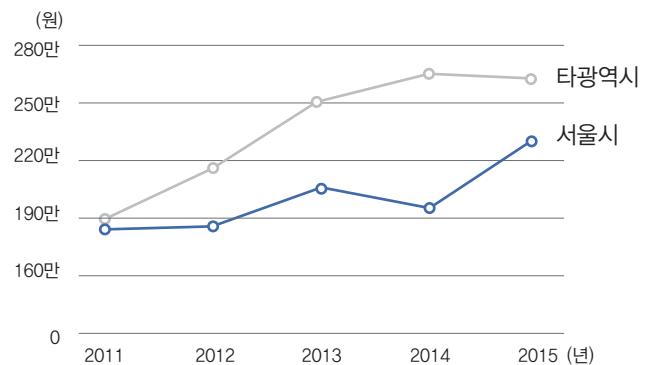
| 주민 1인당 총수익 | 총수익을 당해연도 말 인구수로 나눈 값

주민 1인에게 돌아가는 수익이라는 점에서 높을수록 양호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수익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금액이 주민이 부담한 금액이므로 반드시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의 재정규모가 가장 큼에도 주민 1인당 수익이 타광역시의 평균보다 낮은 것은 주민수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2015년도 서울시와 타 광역시 평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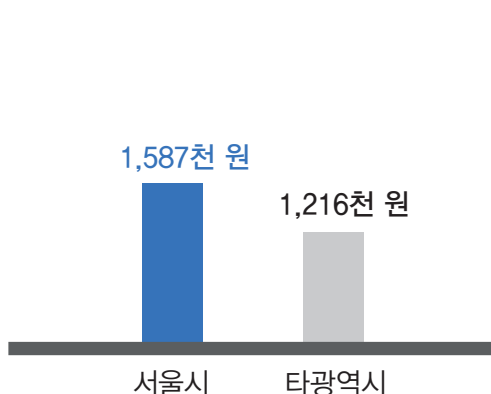
〈최근 5년간 서울시 및 타광역시 평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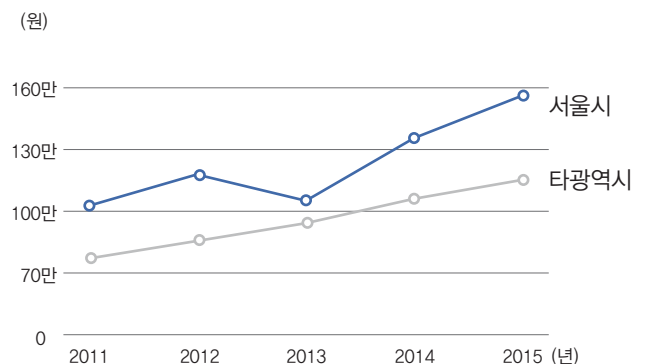
| 주민 1인당 지방세 수익 | 총 수익중 지방세 징수로 발생한 수익을 당해연도 인구 수로 나눈 값

지방세 종류에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등이 있습니다. 주민 1인당 총수익이 타광역시의 평균보다 낮은데도 불구하고, 주민 1인당 지방세 수익이 많은 이유는 지가 등 부동산 가격이 높아 부동산 거래시 발생하는 취득세가 많고, 기업(법인)들이 집중되어 있어 법인이 납부하는 지방소득세 등이 많아 전체적으로 서울시 주민 1인당 세부담액이 타광역시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2015년도 서울시와 타 광역시 평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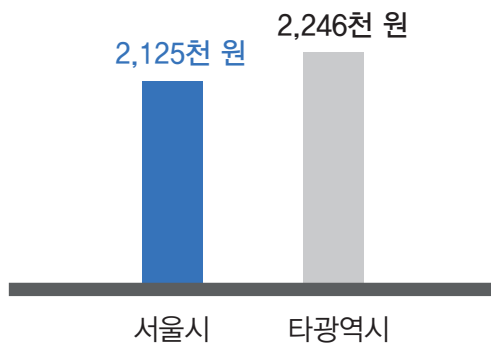
〈최근 5년간 서울시 및 타광역시 평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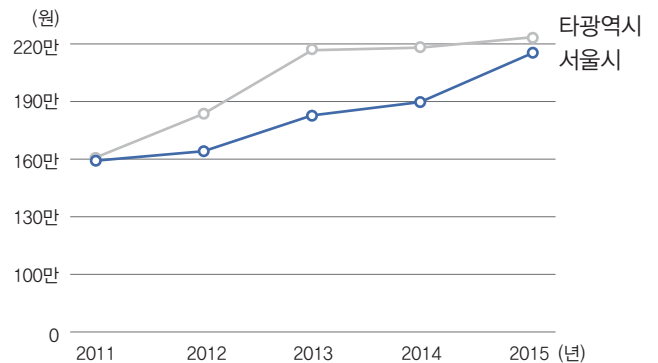
| 주민 1인당 총비용 | 총비용을 당해연도 말 인구수로 나눈 값

한해동안 사용한 비용을 주민 1인당 규모로 측정한 것으로, 서울시가 쓴 돈이라는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동시에 시민에게 돌아간 혜택이라고도 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의 재정규모가 가장 큼에도 주민 1인당 비용이 타광역시의 평균보다 낮은 것은 주민수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2015년도 서울시와 타 광역시 평균 비교〉



〈최근 5년간 서울시 및 타광역시 평균 추이〉



좀 더 자세한 설명이나 자료가 필요하신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시면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예산회계 세입 : 서울시 세무과 (2133-3383)
- 예산회계 세출 : 서울시 재무과 (2133-3239)
- 재 무 회 계 : 서울시 재무과 (2133-3236)

